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지역 전문대 학생을 중심으로 -

김기진^{1)¶}·김향희·정외숙

영남대학교 외식산업학전공^{1)¶}, 대구산업정보대학 호텔조리계열

A Study on Learn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of
Students in Hotel and Food Service Related Departments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s -

Gi-Jin Kim^{1)¶}, Hyang-Hee Kim, Eio-Sook Chung

Major in Food Service Industry, Yeungnan University^{1)¶}
Faculty of Hotel Culinary Arts, Daegu Polytechnic Collage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difference in learn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in hotel and food service related departments at vocational colleges, and subsequently identifies correlation between the two attributes. The research conducted a survey for 300 students in hotel and food service related departments at three vocational colleges in Daegu region, and 267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motivation, students in the age between 20 and 24 indicated 'employment after graduation' as the strongest motivation while relatively older students indicated 'joy of learning' as their motivation. It turned out that students who showed strong motivation in terms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and 'fun of college life' acquired more professional certificates. Next, regarding self-regulated learning,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ability than male students. Students in higher grade, with older age, and with field practice experience showed more strength in self-regulated learning.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a cognitive strategy, meta cognition and achievement value acquired more professional certificates. Learning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an exception of 'amotivation' among learning motivations. 'Amotivation' demonstrated 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the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Key words: self-regulated learning, motivation to learn, education, college, cognitive strategy.

I. 서론

서비스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외식산업은
팔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대기업의 진출과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함께 대형 해외 브랜드의 국내 외식시장 진출로

¶ : 김기진, 010-7501-9707, carving@ynu.ac.kr, 경북 경산시 대동 241-1번지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외식산업학전공

점차적으로 조직화 되고, 시스템화 되어 미래형 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원, 직업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함께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Hwang CH · Kim YS 2004). 그 중 전문대의 호텔, 외식, 조리 관련 학과에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Na YS et al 1999),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예비 조리사를 필요로 하는 외식업체는 많으나, 외식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는 인적 자원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최인식 2002).

전문대학은 2년은 학생들에게 짧은 재학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전문기술을 익혀 졸업과 취업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전문대에 재학하는 2년의 기간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 인식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구성주의에 근거하는 교육은 구체적인 상황, 협동적인 학습 환경, 문제 해결력, 교수활동과 통합된 학습자의 학습평가, 그리고 통합된 다양한 과정 지향적 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전 암기 주입식이었던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저해하였는데,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구성주의 학습을 실천하기 위해 탐구를 통한 토의와 의사결정 학습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김태형 2007).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은 지식과 기술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수자의 일방적인 전달(주입식)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기초한다.

유능한 조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교육기관이며, 그 중에서도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며, 교수는 학생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절차와 방법 및 자신의 판단과 의사결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은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제시된 자료를 지각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능력인 인지 능력과 과제의 성질, 상황 등을 고려해 학습 전략을 세우는 초인지적 능력, 동기적 능력, 행동적 능력을 자기조절학습능력이라 한다(Kim MY · Choi WS 2006).

실제 학습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습 상황을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Zimmerman BJ & Martinez-Pons M 1986; 1990).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일반적인 학습능력과는 다르게 선천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또는 훈련을 통해 학습되거나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학습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행동 특성의 원인 규명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정태욱 2002). 특정한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의해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선호방식의 차이로 학습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Bodi S 1990)에 주목하여 조리와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호텔 · 외식 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조절학습

기존 호텔, 외식, 조리관련 전공의 교육에 대한 연구(Lee YB 2003; 조영림 2002)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즉 학생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효율적,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관점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에 관한 연구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통제와 자기조절과정의 발달에 관한 심리학분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자기조절학습은 인지적, 동기적, 측면과 함께, 학습자의 행동조절, 학습 환경의 통제와 활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Zimmerman BJ 1986).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 성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자기조절학습 연구는 Bandura의 경험적 내용과 연구형태를 토대로 최초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Zimmerman BJ(1986)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심포지엄을 가지다가 1986년 ‘Contemporary Educational Research’의 학습 잡지를 통해 연구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Zimmerman BJ 1986; 양명희 2000).

Zimmerman BJ(1986)은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루는 학습자 내부의 힘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힘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자기조절학습을 메타인지적으로 뿐 아니라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Pintrich PR & De Groot E(1990)는 자기조절학습에 대해 학업 성취에 특히 중요한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인지를 계획, 점검, 그리고

조절하기 위한 메타인지적 요인이다(Corno L & Mandinach EB 1983; Zimmerman BJ & Martinez-Pons M 1986, 1990). 둘째, 학업적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요인이다. 즉, 어려운 과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해나가거나 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Corno L 1986). 셋째, 학습자가 학습하고, 기억하며,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전략요인이다. 즉, 능동적인 인지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리허설, 정교화, 조직화 전략을 의미한다(양명희 2000). 또한 Pintrich PR(1990)는 자기조절학습을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 동기 및 행동을 점검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자발적이며, 건설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즉, 학습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동기, 행동, 주위환경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외부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Zimmerman BJ & Martinez-Pons M(1986)는 자기조절학습이 전략적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구성요인을 메타인지, 동기, 행동요인으로 분류하였고, Pintrich PR(1990)는 자기조절학습을 인지, 동기 및 감정, 행동,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양명희(2000)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차원으로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구성하였고, 인지조절은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고, 동기조절은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행동조절은 행동통제, 시간관리, 도움 구하기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Kim CS(2005)는 동기조절(이러닝 기술효능, 이러닝 효능, 원격현존감), 인지조절(e-초인지, e-인지), 행동조절(시간 관리, 사이버 도움 구하기, 정보관리, 물리적 환경조절)의 3개 구성요인으로 연구하였고, Bak BG et al(2005)는 인지조절(시연, 정교화, 조직화), 인지조절(계획, 점검, 조절), 동기조절(효능 고양, 흥미 유지, 경계

유지, 자치 인식, 정서 관리), 행동조절(공부 시작, 공부 지속, 시험 준비, 긴장 이완, 공간 관리) 등으로 연구하였다.

2. 학습동기

학습동기(motivation to learn)란, 학습자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의지에 관한 것이다. 즉, 동기라는 것은 대체로 인간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러한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으로서 인간 행동의 에너지이며,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심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기는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충동이나 감정 또는 욕구와 필요라 할 수 있다(김승용 2008).

Ryan RM & Connell JP(1989)은 동기를 외적원인(external reason), 부과된 원인(introjected reason), 확인된 원인(identified reason)과 무동기 및 내재적 동기요인을 구성요소로 연구하였다. Deci EL & Ryan RM(2000)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연속선상에 두고 연구하였다.

이러한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종합한 Keller JM(1983)는 ARCS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는 학습동기를 촉진 및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을 들고 있다(Keller JM & Suzuki K 1988). 예컨대, 학습의 자극이 학습자의 주의를 유발하고, 과제와 학습자의 가치나 목표와의 관련성이 지각되어야 하며, 성공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학습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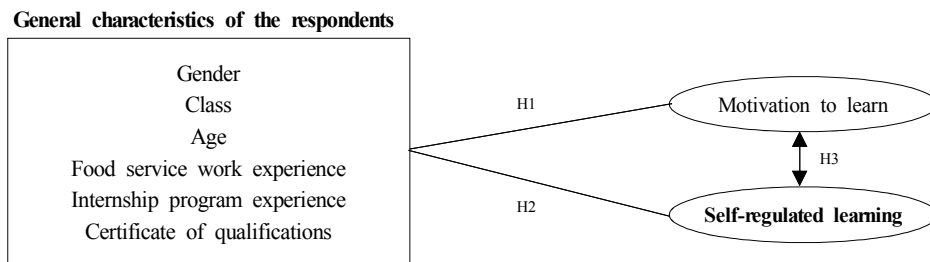
과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학습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승용 2008). Keller JM(1983)의 ARCS 모형을 통한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한 경험 또는 목적을 향해 접근하고, 회피하는 것에 대한 선택인 동시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할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였다. 한편, 무동기(amotivation)는 자신의 학교 공부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 공부에 근원적으로 무관심한 상태로 마지못해 학교에 다닌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전문대학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Keller JM 1983; 이정화 2008)를 바탕으로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과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박우영(2007)의 연구에서는 체육 학습자들의 성별, 학년, 월가계 수입 등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동기, 정화동기, 친화동기, 건강 및 체력동기, 즐거움동기 등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연구가설 1.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양문영(2008)의 학점은행제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수준에 따른 주도적 학습준비도를 살펴본 결과, 학습에 대한 애착과 학습준비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학습에 대한 애착, 자기확신도, 학습준비도가 30대 이상이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동훈(2006)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상호간에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유경호(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전략만으로도 학습동기가 향상될 수 있고, 내재적 동기(본질동기)가 높아야 학습효과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설문문항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동기는 Keller JM(1983)가 주장한 ARCS를 토대로 ‘특정한 경험 또는 목적을 향해 접근하고, 회피하는 것에 대한 선택인 동시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할지에 대한 선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학습동기는 Keller JM(1983), 김승용(2008), 이정화(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되었고, 수정 및 보완하여 28개 항목,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학습자 내부의 힘에 의해 학습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Zimmerman BJ 1986).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도움 구하기는 모르는 부분의 대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며, 성취가치는 학습의 가치를 지각할 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인지전략은 학습내용을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메타인지전략은 자신이 학습을 통해 인지되는 것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행동통제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TV와 같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Zimmerman BJ(1986), 양명희(2000), 이정화(200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되었고, 51항목을 통하여 측정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학년, 연령, 외식 관련 근무 경험, 자격증 소지 여부, 현장 실습 경험의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명목,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조사는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3곳의 전문대학의 호텔, 외식, 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33부를 제외한 267(89.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은 SPSS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One-

way ANOVA 실시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사후검정(Duncan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60.7%, 여학생이 39.3%로 남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1학년 53.6%, 2학년 46.4%로 1학년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미만이 39.7%, 20~24세가 50.2%, 25세 이상이 10.1%로 나타나 20~2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식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학생이 54.7%, 경험이 없는 학생이 45.3%로 외식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25.1%, 경험이 없는 학생이 74.9%로 현장 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은 학생이 64.8%, 1개 취득한 학생이 20.6%, 2개 이상 취득한 학생이 14.6%로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인 김승용(2008), 이정화(2008)의 연구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연구인 이정화(2008)의 연구에서는 모두 신뢰도 분석을 통해 요인을 도출하였지만, 신뢰도 분석만으로는 독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즉 단일차원성이 확보된 요인을 도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아울러 요인에 적재되기에는 정보의 양이 적거나, 2개 차원 이상의 항목에 교차적재되는 항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같은 개념의 차원이더라도 다른 환경 및 대상에 따라 도출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측정적도는 대부분 교육학 쪽에서 사용되어진 개념이며, 호텔, 외식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차원에 적재된 항목 중 적재치가 0.4 이하인 항목, 교차 적재된 항목, 삭제 시 요인의 전체 신뢰도(내적일관성)를 높여주는 항목은 모두 삭제 처리하였다.

학습동기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 시 각 요인에 대하여 0.4 이상으로 교차적재되는 변수는 제거되었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학습동기는 졸업 후 취업(employment after graduation), 무동기(amotivation), 대학생들의 즐거움(pleasure of campus life), 자기 만족(complacency), 학습의 기쁨(delight of studying) 등의 5개의 요인을 도출되었으며, 누적분산설명력은 66.747%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졸업 후 취업은 0.761, 무동기는 0.760, 대학생들의 즐거움은 0.768, 자기 만족은 0.725, 학습의 기쁨은 0.595로 나타났다. 학습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Group	n	%
Gender	Male	159	60.7
	Female	103	39.3
Class	Freshman	143	53.6
	Senior	124	46.4
Age	Under 20	106	39.7
	20~24	134	50.2
	Over 25	27	10.1
Food service work experience	Yes	146	54.7
	No	121	45.3
Internship program experience	Yes	67	25.1
	No	200	74.9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No	173	64.8
	1	55	20.6
	Over 2	39	14.6

¹⁾ Missing value is not dealt with in this analysis.

〈Table 2〉 Factor analysis - motivation to learn

Factor	Variables	Varimax rotated loading	Eigen-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α
Employment after graduation (m=3.598)	1. Education is important in securing a good job after graduation.	0.760	2.422	15.135	0.761
	8. Academic background is important in securing a desirable job after college graduation.	0.754			
	15. Certain level of educational background is required to ensure a decent living after college graduation.	0.745			
	9. Educational background is important in discovering new life experiences.	0.724			
Motivation (m=2.327)	20. I cannot explain why I decided to go to a college. I am not very interested in attending a college.	0.798	2.403	15.018	0.760
	12. I had a sufficient reason to go to a college before, but I am not so sure anymore.	0.744			
	5. I am not sure why I bothered to go to a college. It feels like a waste of time.	0.710			
	26. I cannot grasp what I am going through at a college very well.	0.627			
Pleasure of campus life (m=3.043)	11. It is because college is a source of fun and pleasure.	0.853	2.133	13.329	0.768
	4. It is because I really enjoy going to a college.	0.789			
	13. I feel satisfied as I confront and solve problems in a college life.	0.626			
Complacency (m=3.345)	28. It is because I want to demonstrate to myself that I can be successful in my field.	0.835	2.116	13.224	0.725
	27. It is because I derive personal pleasure in course of accomplishing something in a college life.	0.780			
	22. It is because I want to prove to myself that I am an intelligent person.	0.678			
Delight of studying (m=3.503)	6. It is because I feel joyous when I can overcome my weaknesses in a college life.	0.806	1.607	10.042	0.595
	2. It is because of joy and satisfaction in acquiring new knowledge.	0.572			
Total variance(%)=66.747, KMO=0.745, Bartlett's test=1560.715***					

*** $p < 0.001$.

기쁨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병서와 김계수(2005)는 문항 전체의 알파계수가 0.5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요인에 적재된 항목 중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삭제되었고, 유효한 항목은 모두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적재되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 시 각 요인에 대하여 0.4 이상으로 교차적재 되는 변수는 제거되었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행동통제(action control), 메타인지전략(meta cognition), 성

<Table 3> Factor analysis - self-regulated learning

Factor	Variables	Varimax rotated loading	Eigen-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α
Action control (m=2.949)	37. Once I decide to study, I usually go ahead with a plan.	0.725	3.033	15.167	0.772
	45. I carry out my plan to the end even if studying becomes tedious.	0.704			
	38. I organize a time schedule for effective study.	0.678			
	43. I concentrate until I finish the portion of study I planned.	0.673			
	40. I usually start studying right away once I make up my mind.	0.640			
	35. I set a clear goal for the amount of study before I start.	0.521			
Meta cognition (m=3.064)	11. I often check whether I am following the study material well while studying.	0.815	2.574	12.868	0.791
	13. Sometimes I ask myself about the content of study in the middle of an intensive study session.	0.775			
	12. When I study a certain subject, I seek its relation with my background knowledge.	0.754			
	15. When I read a textbook, I try to connect its content with my background knowledge.	0.614			
Achievement value (m=3.444)	33. School education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selecting my future job.	0.851	2.303	11.517	0.779
	32. School life will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my future.	0.846			
	34. School life will facilitate my social life in the future.	0.733			
Seeking help (m=3.466)	39. I ask people around me if I come across something I do not understand well while studying.	0.877	1.940	9.699	0.708
	46. I ask for others' help when I cannot understand something while studying.	0.739			
	41. I seek help of professors or my colleagues when I cannot understand something while studying.	0.513			
Cognitive strategy (m=3.339)	6. If time is insufficient, I only read important parts of a book.	0.806	1.680	8.400	0.606
	8. If time is insufficient, I skip unimportant parts.	0.609			
Self-efficacy (m=3.535)	23. I am an excellent student compared to others in the department.	0.849	1.620	8.101	0.669
	18. I can excel in studying compared to others in the department.	0.694			
Total variance(%)=65.751, KMO=0.744, Bartlett's test=1846.668***					

*** $p < 0.001$.

취가치(achievement value), 도움 구하기(seeking help),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y),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누적분

산설명력은 65.751%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행동 통제는 0.772, 메타인지전략은 0.791, 성취가치는 0.779, 도움 구하기는 0.708, 인지전략은 0.606, 자

기효능감은 0.669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적재된 항목 중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삭제되었고, 유효한 항목은 모두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적재되었다.

3. 연구가설의 검정

1) 연구가설 1.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학년이 1학년보다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졸업 후 취업, 무동기, 대학생활의 즐거움, 학습의 기쁨의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세의 학생들이 25세 이상의 학생들보다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세 이하가 25세 이상보다 무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세 이하가 25세 이상보다 대학생활에 대한 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 이하

<Table 4> Motivation to lear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Level	n	Motivation to learn(m±S.D.) ¹⁾				
			Employment after graduation	Amotivation	Pleasure of campus life	Complacency	Delight of studying
Gender	Male	159	3.580±0.754	2.287±0.682	2.920±0.690	3.350±0.702	3.478±0.666
	Female	103	3.592±0.728	2.400±0.773	3.220±0.720	3.320±0.571	3.514±0.680
	<i>t</i>		-0.128	-1.239	-3.371**	0.359	-0.430
Class	Freshman	143	3.592±0.778	2.368±0.708	2.997±0.642	3.414±0.596	3.416±0.666
	Senior	124	3.604±0.702	2.280±0.735	3.096±0.782	3.266±0.702	3.604±0.669
	<i>t</i>		-0.133	1.002	-1.121	1.872	-2.304*
Age	Under 20	106	3.492±0.805 ^{ab}	2.450±0.665 ^b	2.911±0.535 ^a	3.311±0.516	3.245±0.586 ^a
	20~24	134	3.746±0.687 ^b	2.281±0.751 ^{ab}	3.092±0.760 ^{ab}	3.330±0.740	3.611±0.698 ^b
	Over 25	27	3.277±0.585 ^a	2.074±0.706 ^a	3.321±0.944 ^c	3.555±0.627	3.981±0.427 ^c
	<i>F</i>		6.493**	3.545*	4.286*	1.594	18.500***
Food service work experience	Yes	146	3.645±0.744	2.330±0.735	3.070±0.749	3.406±0.583	3.476±0.627
	No	121	3.541±0.740	2.324±0.706	3.011±0.663	3.272±0.718	3.537±0.725
	<i>t</i>		1.142	0.069	0.683	1.677	-0.729
Internship program experience	Yes	67	3.574±0.667	2.186±0.715	3.169±0.934	3.378±0.582	3.626±0.566
	No	200	3.606±0.768	2.375±0.718	3.001±0.615	3.335±0.672	3.462±0.701
	<i>t</i>		-0.301	-1.860	1.371	0.469	1.737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No	173	3.527±0.704 ^a	2.448±0.722 ^b	2.961±0.624 ^a	3.346±0.655	3.459±0.667
	1	55	3.577±0.898 ^a	1.995±0.693 ^a	3.048±0.917 ^a	3.400±0.712	3.618±0.673
	Over 2	39	3.942±0.569 ^b	2.262±0.601 ^b	3.401±0.645 ^b	3.265±0.536	3.538±0.691
	<i>F</i>		5.144**	8.901***	6.347**	0.490	1.222

¹⁾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²⁾ **p*<0.05, ***p*<0.01, ****p*<0.001.

³⁾ ^{a-c} Mea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보다 25세 이상이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는 20세 이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음으로 20~24세, 25세 이상의 순으로 25세 이상이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관련 근무 경험과 현장 실습 경험에 따른 학습동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자격증 취득에 따라서 졸업 후 취업, 무동기, 대학생활의 즐거움의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동기는 자격증이 없거나 1개를 가지고 있는 학생 보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동기는 자격증이 없거나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을 하는데 동기 자체가 없는 무동기가 자격증이 없거나,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1개의 자격증을 가진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는 자격증이 없거나, 1개의 자격증을 가진 학생보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 2.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Table 5> Self-regulated learn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Level	n	Self-regulated learning(m±S.D.) ¹⁾					
			Cognitive strategy	Meta cognition	Self efficacy	Achievement value	Action control	Seeking help
Gender	Male	159	3.330±0.706	2.992±0.633	3.559±0.844	3.419±0.603	2.920±0.549	3.410±0.642
	Female	103	3.339±0.594	3.157±0.668	3.485±0.712	3.501±0.561	2.973±0.559	3.556±0.560
	<i>t</i>		-0.114	-1.996*	0.739	-1.108	-0.757	-1.884
Class	Freshman	143	3.241±0.646	2.989±0.646	3.549±0.829	3.445±0.622	2.862±0.586	3.410±0.643
	Senior	124	3.451±0.663	3.149±0.639	3.520±0.741	3.443±0.543	3.050±0.505	3.532±0.570
	<i>t</i>		-2.618**	-2.018*	0.297	0.023	-2.770**	-1.628
Age	Under 20	106	3.150±0.621 ^a	2.937±0.617 ^a	3.448±0.864 ^{ab}	3.443±0.616	2.753±0.550 ^a	3.393±0.688
	20~24	134	3.470±0.665 ^b	3.089±0.647 ^a	3.649±0.717 ^b	3.425±0.566	3.064±0.530 ^b	3.507±0.544
	Over 25	27	3.425±0.646 ^b	3.425±0.627 ^b	3.314±0.748 ^a	3.543±0.571	3.154±0.499 ^b	3.555±0.606
	<i>F</i>		7.487**	6.583**	3.153*	0.452	12.126***	1.350
Food service work experience	Yes	146	3.308±0.677	3.063±0.643	3.753±0.616	3.468±0.508	2.957±0.541	3.486±0.563
	No	121	3.376±0.643	3.065±0.653	3.272±0.889	3.416±0.669	2.938±0.579	3.443±0.668
	<i>t</i>		-0.833	-0.022	5.026***	0.703	0.281	0.558
Internship program experience	Yes	67	3.358±0.608	3.201±0.645	3.694±0.627	3.641±0.503	3.012±0.568	3.686±0.630
	No	200	3.332±0.680	3.017±0.642	3.482±0.830	3.378±0.598	2.927±0.554	3.393±0.590
	<i>t</i>		0.275	2.022*	1.910	3.528**	1.076	3.461**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No	173	3.265±0.599 ^a	2.995±0.580 ^a	3.549±0.683	3.364±0.595 ^a	2.899±0.556	3.439±0.659
	1	55	3.481±0.781 ^a	3.013±0.779 ^a	3.554±0.895	3.460±0.515 ^a	2.971±0.574	3.478±0.535
	Over 2	39	3.461±0.710 ^a	3.459±0.602 ^b	3.448±1.043	3.777±0.531 ^b	3.136±0.512	3.572±0.483
	<i>F</i>		3.049*	8.498***	0.277	8.383***	2.968	0.766

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2) **p*<0.05, ***p*<0.01, ****p*<0.001.

3) ^{a,b} Mea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메타인지전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메타인지전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행동통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개 요인 모두 1학년보다 2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자기효능감, 행동통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지전략과 행동통제는 20세 미만보다 20세 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메타인지전략은 25세 이상이 24세 이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20~24세가 25세 이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관련 근무 경험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식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근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실습 경험에 따라서 메타인지전략, 성취가치, 도움 구하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메타인지전략, 성취가치, 도움 구하기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

득에 따라서는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 성취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결과, 인지전략은 집단 간 분류가 되지 않았고, 메타인지전략과 성취가치는 2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1개 이하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가설 3.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관분석결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동기는 행동통제를 제외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요인들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지전략과 0.674의 상당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기효능감과도 0.468의 상당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가치와 0.255로 약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동기는 모든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부(-)의

<Table 6>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Variable	Motivation to learn				
	Employment after graduation (m=3.598)	Amotivation (m=2.327)	Pleasure of campus life (m=3.043)	Complacency (m=3.345)	Delight of studying (m=3.503)
Cognitive strategy (m=3.339)	0.674***	-0.331***	0.324***	0.165**	0.605***
Meta cognition (m=3.064)	0.157**	-0.216***	0.307***	0.273***	0.357***
Self-efficacy (m=3.535)	0.468***	-0.152*	0.241***	0.378***	0.115
Achievement value (m=3.444)	0.255***	-0.307**	0.288***	0.410***	0.275***
Action control (m=2.949)	0.093	-0.054	0.308***	0.250***	0.222***
Seeking help (m=3.466)	0.184**	-0.211**	0.274***	0.293***	0.236***

* $p < 0.05$, ** $p < 0.01$, *** $p < 0.001$.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통제를 제외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요인들과 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지전략은 -0.331 , 성취가치는 -0.307 로 약간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타인지전략과 도움 구하기와도 약간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모든 요인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지전략과 0.324 , 행동통제와 0.308 , 메타인지전략과 0.307 의 약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가치와 0.288 , 도움 구하기와 0.274 , 자기효능감과 0.241 로 약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만족에 대한 동기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모든 요인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취가치와 0.410 의 상당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 0.378 로 약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 구하기와 0.293 , 메타인지전략과 0.273 , 행동통제와 0.250 로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는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지전략과 0.605 의 상당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타인지전략과 0.357 로 약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가치는 0.275 , 도움 구하기는 0.236 , 행동통제는 0.222 로 약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호텔·외식·조리 관련 학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

생들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연령, 외식 관련 근무 경험, 현장 실습 경험,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는 졸업 후 취업을 위한 동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습의 기쁨, 자기 만족, 대학생활의 즐거움, 무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움 구하기, 성취가치,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행동통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과 학습에 대한 기쁨, 자기 만족에 대한 학습동기가 강하고, 무동기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호텔, 외식, 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은 졸업 후 취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동기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학습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동기를 채우고, 나아가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채워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자기조절학습능력 중 텔레비전과 같은 유혹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 통제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도움 구하기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핵심전략인 인지전략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전문대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습을 하는 가장 강한 동기인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동기는 20~24세가 가장 강했고,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격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두 번째 동기인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

는 2학년이 1학년보다 강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세 번째 동기인 자기 만족 동기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했고, 25세 이상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를 다니고 학습을 하는 동기 중 가장 낮은 동기인 무동기는 20세 이하가 강하게 나타났고, 자격증이 없거나,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학생이 무동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상 연령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동기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령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학습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20대 미만의 1학년 학생들의 무동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4세의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자격증과 학점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에 대한 기쁨에 대한 동기가 높은 연령대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문대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중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은 20~24세가 25세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식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도움을 구하기는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성취가치는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고,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학생이 2개 미만으로 취득한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인 인지전략은 2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세 이상이 20세 미만인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

째인 메타인지전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이 24세 이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봉(2004)의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아울러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학생이 2개 미만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중 가장 낮은 행동통제는 1학년보다 2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세 이상의 학생이 20세 미만의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장 실습이 학생들에게 꼭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Wi SB과 Jang YL(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장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관광업계에 대해 실습 후 부정적 시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관광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싫어졌다는 학생이 많아졌으며, 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Jung HS과 Yoon HH(2004)의 연구에서도 조리학 전공 대학생들의 인턴십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현장 실습이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실습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와 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 중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성취가치, 행동통제, 도움 구하기는 여학생, 학년이 높고 연령이 높으며,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높은 것을 시사한다. 이는 조영립(2002)의 연구에서처럼 산학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성취가치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취득하는 자격증이 더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호

텔, 외식,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법 및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채워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넷째,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동기가 강할수록 인지전략과 자기효능감, 성취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가 강할수록 인지전략과 메타인지전략, 성취가치, 도움 구하기, 행동통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만족에 대한 동기가 강할수록 성취가치, 자기효능감, 도움 구하기, 메타인지전략, 행동통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강할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동기가 강할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무동기는 약해진다. Han SH(2007)의 연구에서 처럼 학습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졸업 후 취업, 학습의 기쁨,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인지전략은 높고, 인지전략이 높은 학생일수록 무동기는 낮아짐을 시사한다. 또한, Zimmerman BJ (1986)이 메타인지전략을 시행하는 학생이 자기조절학습자라고 언급했듯이 대학생활의 즐거움, 학습의 기쁨이 높은 학생 즉 여학생이며, 학년이 높고, 연령이 높은 학생이 메타인지전략이 높은 학생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자기 만족의 동기가 강한 학생이 성취가치와 자기효능감이 높고, 대학생활의 즐거움의 동기가 강할수록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과 함께 행동통제 능력도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졸업후 취업이라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학습을 즐기면서 기쁨으로 행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인 대표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전문대학의 학생으로 한정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된 4년제 대학을 함께 측정하여 연구한다면, 전문대 학생과 4년제 대학 학생의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교육성과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대 학생과 4년제 학생의 강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문대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전문대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대구지역의 3개 전문대 호텔·외식조리 관련학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6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학습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졸업 후 취업’이라는 동기가 강한 학생은 20~24세로 나타났고, ‘학습의 기쁨’에 대한 동기는 연령이 높을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졸업 후 취업’, ‘대학생활의 즐거움’의 동기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자격증을 더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학년과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성취가치’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

생보다 취득한 자격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는 학습동기 중 '무동기'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동기'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모든 요인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병서·김계수 (2005). 사회과학 통계분석. 한나래, 319, 서울.
- 김동훈 (2006). 자기조절능력, 스트레스, 정서기능이 학습동기화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1-43, 강원.
- 김승용 (2008). 문제중심학습(PBL)을 통한 레저스포츠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의 학습동기, 학습 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20, 서울.
- 김충기 (198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9, 서울.
- 김태형 (2007). 조리실기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의사소통 모형개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서울.
- 박우영 (2007). 초등학생의 체육 특기 적성 교육 참여 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38, 서울.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16, 서울.
- 양문영 (2008). 학점은행제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30, 경기.
- 유경호 (2004). ARCS 모델 기반 자기조절학습 수업전략이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1-113, 서울.
- 이승주 (2009). 전문대학 선호학과 유형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서울.
- 이정화 (2008). ARCS모형을 적용한 대학교양무용 수업이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및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46, 서울.
- 정태욱 (2002). 자기 주도적 학습력에서 나타난 행동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순천.
- 조영림 (2002). 산학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63, 서울.
- 최인식 (2002). 조리사양성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서울.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 Educational Psycholo* 84(3): 261-271.
- Bak BG · Jung KS · Kim SM · Lee JU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mplex scale of self-regulated learning: Focused on integrating the subscale of motivation regulation. *Korean J Educational Psycholo* 19(4):1219-1240.
- Bodi S (1990). Teaching effectiveness and bibliographic instruction: The relevance of learning styles. *College & Res Libraries* 51(2):113-119.
- Britton BK · Tesser A (1991). Effects of time management practices on college grades. *J Educational Psycholo* 83(3):405-410.
- Corno L · Mandinach EB (1983). The role of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18(2):88-108.
- Corno L (1986). Feedback and self-regulated learning: A theoretical synthesis. *Rev Educational Res* 65(3):245-281.
- Deci EL · Ryan R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227-279.
- Eccles JS · Midgley C (1989). Stage-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 young adolescents. In C. Ames & R. Ames (Eds). *Res Motivation Edu* 3:139-186.
- Flavell JH (1979). Metacognition & cognitive monitoring. *Am Psychologist* 34:906-911.
- Gamer R (1990). When children and adults do not use learning strategies: toward a theory of settings. *Rev Educational Res* 60(4):517-529.
- Han S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mong adult learners. *J Learner-Centered Curriculum & Instruction* 7(2):355-374.
- Hwang CH · Kim YS (2004).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nditions and student satisfaction of a foodstylist. *Korean J Culinary Res* 10(3):51-64.
- Jung HS · Yoon HH (2004).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with internship program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studies. *Korean Soc Food Cookery Sci* 20(3):299-309.
- Karabenick SA · Knapp JR (1991). Relationship of academic help seeking to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instrumental achievement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 Educational Psycholo* 83(2):221-230.
- Keller JM · Suzuki K (1998). Use of the ARCS model in courseware design. In instructional designs for computer courseware, jonassen, D.H. (ed), New York: Lawrence Elbaum Associates Inc, 401-434.
- Keller JM (1983). Motivational design of instruction. In C.M. Reigeluth(Ed.),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Hillsdale, N.J.: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383-434.
- Kim CS (2005). Self-regulated learning in e-learning environment. *J Education Res* 26(1):177-192.
- Kim MY · Choi WS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style and degree of learning participation in on-line learning of engineering university student. *Korean Institute Industrial Educators* 31(1): 110-128.
- Lee YB (2003).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to improve job competence in department of culinary arts. *J Foodservice Management* 6(2):143-164.
- Macan TH · Shahani C · Dipboye RL · Phillips AP (1990). College students' tim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 stress. *J Educational Psycholo* 82(4):760-768.
- Maclver DJ · Stipek DJ · Daniels DH (1991). Explaining within-semester changes on student effort in junior high school courses. *J Educational Psycholo* 83(2):201-211.
- Meece JL · Blumenfeld PC · Hoyle RH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 Educational Psycholo* 80(4):514-523.
- Miller RB · Behrens JT · Greene BA · Newman D (1993). Goals and perceived ability: Impact on student valuing,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 18(1):2-14.
- Na YS · Jeng JH · Kang JG · Lee JH (1999). A study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in culinary department of college. *Korean J Culinary Res* 5(2):29-56.
- Newman RS · Goldin L (1990). Children's reluctance to seek help with schoolwork. *J Educational Psycholo* 82(1):92-100.
- Newman RS (1990). Children's help-seeking in the classroom: The role of motivational factors and attitudes. *J Educational Psycholo* 82(1): 71-80.
- Pintrich PR · De Groot E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 Educational Psycholo* 82(1):33-40.

- Pintrich PR (1990). The role of motivation in promoting and sustaining self-regulated learning. *J Educational Res* 31(6):459-470.
- Pokay P · Blumenfeld PC (1990). Predicting achievement early and late in the semester: the role of motivation and use of learning strategies. *J Educational Psycholo* 82(1):41-50.
- Ryan RM · Connell J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 Personality Soc Psycholo* 57(5): 749-761.
- Wi SB · Jang YL (2000). A study on the tourism related department students on OJT. *Korean J Culinary Res* 6(2):291-314.
- Zimmerman BJ · Martinez-Pons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 J* 23(4):614-628.
- Zimmerman BJ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 Educational Psycholo* 82(1): 51-59.
- Zimmerman BJ (1986).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 11(4):307-313.

2010년 1월 7일 접수
 2010년 4월 19일 1차 논문수정
 2010년 5월 24일 2차 논문수정
 2010년 6월 6일 3차 논문수정
 2010년 6월 15일 게재확정